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호 [루게 제24780호] 주체104(2015)년 1월 2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세상만복을 누리며 자라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친어머니의 대하같은 은정을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드리면서 삼가 설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하시며 따듯이 축복해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식당, 보육실, 교양실, 잠방, 물놀이장, 지능놀이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원아들이 설을 어떻게 쇠고있는가를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탁마다



에 맛있고 영양가 높은 특색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은것을 보니 원아들을 위해 설준비를 성의껏 한것이 알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당에서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물고기와 고기, 남새, 과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는 체계를 고조시켜 세워주었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들리신 곳마다에서는 원아들이 저저마다 달려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원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동동 매달렸다.

원아들은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시

고운 옷을 입고 원수님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꿈이야기도 하였으며 물고기, 고기, 사과, 파자, 빵, 사과, 복숭아, 꿀을 먹는다라는 자랑도 신바람이 나서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보뚱뚱하고 환해졌으며 씩씩해졌다고, 모두 뚱뚱하다고,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설을 쇠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지능놀이를 하고있는 원아들의 모습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자면 그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어린이용지능도서들을 잘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시설물들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원아들에게 올바른 도덕품성과 창발성,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주어 그들속에서

인민군대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며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보육원, 교양원들이 어머니다운 뜨거운 사랑과 함께 높은 교육적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와 평양시당, 대동강구역당의 일군들이 원아들과 설을 함께 쇠려고 왔는데 잘했다고, 원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양, 교육조건이 훌륭히 마련된것도 기쁜 일이지만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적미풍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육원 원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시었다.

서장 《우리 자랑 노래 불러요》, 무용 《만수대 찾아가요》, 5중창 《애육원은 우리 집》, 장고제주 《제일 좋은 내 나라》, 남독창 《우리 나라 제일이야》, 구연과 노래 《내가 만든 눈사람》, 남중창 《오마군대 앞으로》, 중창이야기

《유회곡》, 민속놀이 《즐거미》의 종목들을 통하여 원아들은 자기들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였다.

친아버지앞에서 재물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춤과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종장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이 보고싶었다고, 원수님이 지어주신 궁궐같은 우리들의 새 집이 정말 좋다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원아들은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드리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1 면에서 계속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점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주기를 바란다 고 거듭 당부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새기신 사랑의 혁명일화는 우리 아이들과 친만군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며 한없이 다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 가정의 아버지로 모신 크나큰 공지와 행복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해주며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은일동지께

## 새해를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 104(2015)년 새해를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고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영생하시어 선군조선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송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용대에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향열에 놓여 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장령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울음울,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직 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자로서 조국해방과 당창성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새로운 주제100년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한해로 빛내어갈 불타는 열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울음울,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직 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자로서 조국해방과 당창성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새로운 주제100년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한해로 빛내어갈 불타는 열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새해를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주제 104(2015)년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호모의 마음을 안고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새해의 첫아침 전국각지에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앞에 놓여 있는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해방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하여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끓어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적혀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걸으며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장작사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열에도 다함없는 충정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열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도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고야말라 불리는 길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새해의 첫인사 삼가 드립니다

##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은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밝아오는것이다.

성지의 하늘이 희롱히 열리기 시작하자 새해의 첫 리듬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 그리고 이해에 조국해방 일흔팔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팔을 뜻깊게 맞이하게 될 내 나라의 방방곡곡에 비껴갔다.

자연의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지만 우리 조국의 새해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장군님들께서 영생하시며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고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부터 밝아오는것이다.

대문이 열리자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자란 천만자식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새해의 첫인사를 드리고자 경건한 마음으로 광장에 들어서시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더욱 절절한 그리움속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총명과 천리도덕의 세계를 펼쳐가는 우리 천만군민이다.

령도자의 모습은 령도자가 키워내는 인민의 모습에 비끼는 법이다.

우리 조국력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2014년을 보내고 더욱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하는 1월 10(2015)년 새해의 최고성지를 찾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새해의 인사삼가 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장으로 들어서시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아졌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었다.

뜻깊은 지난해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의 투쟁과업을 제시하시는 신년사에서에도 제일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새해의 인사삼가 드린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삼가 드립니다.》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고결한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감을 따라 희망찬 새해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는것으로부러 시작하는 우리 인민의 기쁨은 얼마나 흥룡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우리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경건히 인사를 드린 사람들중에서 처음으로 만난것은 조선인민군 군관 박연수, 리선남동무들이었다.

그들은 새해의 첫날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인사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던 온 한해동안 막혔던 고려들도 거침없이 풀려나간다고 하면서 금수산태양궁전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이것이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전심하던것도 시간을 내어 성지의 광장에 자주 찾아와 잔디밭에서 나무들도 돌보고 가꾸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였다.

정년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산혁명강군, 사상의 강군으로 강구력한것은 모든 군민들이 그 언저리 태양의 성지를 마음의 한복판에 안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떠놓았다.

《정말 우리 원수님 같은신 최고사령관은 이 세상에 없었나. 정력에 넘치시며 올해에 올려주시고 가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온몸이 풀리고 매혹되었습니다. 온몸에 넘치시는 현명성, 담력과 배양,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의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였기에 올해에도 우리가 이겨도 크게 이겼구나 하는 락판이 차넘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새해의 첫인사를 삼가 올린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광장에서 행행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진행단위들이 무수히 창조되고 그것을 따라와서기 위한 진단정적정열들이 일어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급속도로 발전해나가고 군민대단합의 위력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시간을 다투며 기적의 창조물들이 일떠서는 자랑찬 결실을 이루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지난 해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괴들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적투쟁을 즐기차게 벌려올수 있었습다.

인류력사는 장구한 세월의 어느 갈피에서도 오늘 우리 혁명이 처한것과 같은 엄혹한 환경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을 이룩한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백두령장의 천룡과 그 어느 정치가도

다할수 없는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입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백두산장군의 손길따라 경제각국 건설의 도야대가 마련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는 보다 굳건히 다져졌으며 승리의 려명은 행복의 해돋이로 밝아올랐습다.

왕으로 우리 천만군민과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이인 최고령도자로, 가장 훌륭한 위인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느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영광이고 특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시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어머니이시리시며의 서거 20년 추모행사에 불러주시어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전승 60국을 맞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안겨주시는 다정한 어머니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다.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할수 없는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입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백두산장군의 손길따라 경제각국 건설의 도야대가 마련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는 보다 굳건히 다져졌으며 승리의 려명은 행복의 해돋이로 밝아올랐습다.

왕으로 우리 천만군민과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이인 최고령도자로, 가장 훌륭한 위인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느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영광이고 특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시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어머니이시리시며의 서거 20년 추모행사에 불러주시어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전승 60국을 맞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안겨주시는 다정한 어머니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은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 104(2015)년 새해를 맞으며 주조 외교단, 무관단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1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나라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사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열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외부에서 주관한 평양시외국인민중대회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직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송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또한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외부에서 주관한 평양시외국인민중대회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축하속에 백두산대국으로 누리에 존엄받치고있는 우리 조국에 새해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과 송결도 결음도 함께 하며 2014년을 조국정사해가 길이 빛날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해로 빛내이고 승리의 신년드높이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각 제중조선인총련합회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다함없는 충정과 호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새해의 첫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커다란 경도속에 흘러간 지난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원수님께서 밝혀주시신 길을 따라 최후승리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온 자랑찬 비약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을 창조와 변혁의 제일무기로 내세우시고 새로운 사상전선의 불길, 전민과학기술인재회의 열풍을 일으켜 전체 인민을 신념의 강자, 기적창조의 대부대로 위훈받치게 하시고 과학중시, 교육중시행풍이 세계를 락만치는 속에도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시였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진행단위들이 무수히 창조되고 그것을 따라와서기 위한 진단정적정열들이 일어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급속도로 발전해나가고 군민대단합의 위력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시간을 다투며 기적의 창조물들이 일떠서는 자랑찬 결실을 이루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지난 해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괴들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적투쟁을 즐기차게 벌려올수 있었습다.

인류력사는 장구한 세월의 어느 갈피에서도 오늘 우리 혁명이 처한것과 같은 엄혹한 환경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을 이룩한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백두령장의 천룡과 그 어느 정치가도

다할수 없는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입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백두산장군의 손길따라 경제각국 건설의 도야대가 마련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는 보다 굳건히 다져졌으며 승리의 려명은 행복의 해돋이로 밝아올랐습다.

왕으로 우리 천만군민과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이인 최고령도자로, 가장 훌륭한 위인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느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영광이고 특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시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어머니이시리시며의 서거 20년 추모행사에 불러주시어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전승 60국을 맞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안겨주시는 다정한 어머니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다할수 없는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입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백두산장군의 손길따라 경제각국 건설의 도야대가 마련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는 보다 굳건히 다져졌으며 승리의 려명은 행복의 해돋이로 밝아올랐습다.

왕으로 우리 천만군민과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이인 최고령도자로, 가장 훌륭한 위인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느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영광이고 특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시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어머니이시리시며의 서거 20년 추모행사에 불러주시어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전승 60국을 맞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안겨주시는 다정한 어머니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다할수 없는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입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백두산장군의 손길따라 경제각국 건설의 도야대가 마련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는 보다 굳건히 다져졌으며 승리의 려명은 행복의 해돋이로 밝아올랐습다.

왕으로 우리 천만군민과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이인 최고령도자로, 가장 훌륭한 위인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느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영광이고 특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시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어머니이시리시며의 서거 20년 추모행사에 불러주시어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전승 60국을 맞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안겨주시는 다정한 어머니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광장공원에서 한 일행과 만났다.

한가정이라고 보면 너무도 대가정 이어서 깨닭을 묻는 우리에게 나이지 속한 사람이 우리 부부에서는 오늘 가족들끼리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한 중앙기관에서 일군으로 일하는 윤진동무였다.

그는 뜻깊은 지난해에 자기 단위를 가정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불타는 열의도 다지려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였다. 당대표로서 사업한

들과 주단체처럼 포근한 잔디들로 울퉁퉁하게 꾸러진 공원이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국제사회계가 격찬  
백승의 선군령도로 미제의 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더욱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충성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리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강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고시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수호하는 강력한 령도자.  
영국조선전선위원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진보적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R》 2호기의 성과적 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을 구실로 더욱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공세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강력히 맞서나가고도 하시였다.  
조선의 초강대국과 절절한 반제혁명적립장은 반미대결전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참으로 그 존함만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이 공포에 떠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뿐아니라 세계반제혁명력량의 최고사령관이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승수완성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앞길 휘황찬란하다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김정일동지의 당의 력사에 일흔번째의 년풍을 아로새기는 주제 104(2015)년 새해가 밝아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를 만드는데 이어주며 백두봉에서 밝아온 새해의 이 아침 천만군민은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영일불멸할 업적을 쌓으시고 오늘도 그 광휘로운 앞길을 축복해주고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에 젖어 영생축원의 설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며 밝아온 새해의 아침 이 나라의 천만민들은 그 언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대원수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혼연일체의 고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최후승리의 길을 헌신히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달라고있다.

지난해의 강령군검에서 차가워진 손을 녹이시며 설날의 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계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마음들...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눈부신 행로우에 미증유의 사변들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가슴속엔데리고 오직 한분 그이만을 믿고 산악도 격랑도 용감무쌍히 헤쳐온 영광의 로정이 승연히 되새겨지는 뜻깊은 이 아침 천만민들은 우리의 운명의 전부이시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이룩해 주신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조국과 인민이라는 신성한 부름앞에 열과 정을 다 바친 위인의 공적은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고 해를 넘길수록 력사의 갈피속에 빛나는 법이다. 제물쿠는 여름내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사찰립건설장이며 평양유아원, 애육원건설장, 연풍과학자 유양소건설장들에 사랑의 자욱을 찍으시고 모자머 외투에 눈을 수북이 없으면서도 병사들을 찾고 또 찾으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이 더욱 눈물겹게 어려오는 이 아침이다.

불세출의 위인, 인민의 아버지를 하늘처럼 믿고 받들고 따르는 비길데 없는 행복을 천만군민은 희망한 새해의 첫아침과 더불어 세상에 격조높이 자랑한다. 인민의 운명을 매혹으로 뒤흔던지게 하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인민모두를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 한사람한사람의 운명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진정 시련의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운명도 미래도 다 달고자 따를 유일한 마음의 기둥, 운명의 수호자, 하늘이시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

국가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원수들이 별의별 추악한짓을 다 부리며 발광한다 해도 백두산대국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

이런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 력사에 류례없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 흠모심은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애복은 결코 권력이나 돈으로 자아낼수 없다. 정치는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추대된다.

아무리 정치철학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덕망이 고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지 못한다. 인민의 운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뇌수이며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담보해야 하는 인민의 령도자는 마땅히 인민사랑의 확신이어야 한다.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만이 위대한 덕망을 천봉으로 지닐수 있다. 참된 사랑은 인간을 완성시켜주는 무한한 힘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도자의 심장에서만 분출될수 있는 정과 열이다. 자기나 개인만을 생각하며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인민을 위한 행복의 꽃바다를 펼쳐줄 일념으로 정과 열을 불어넣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의 확신으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는 명실공히 우리 군대, 우리 인민을 위한 더없이 훌륭하고 그치지없이 순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천만이면 천만, 억만이면 억만 모두의 가슴에서 뜨거우게 이 격랑치게 하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이 숭고한 인민관, 우리 원수님의 모든 사색의 중심에는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사랑이 놓여있고 진할줄 모르는 활동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도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것처럼 그렇게 일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늘 외우시며 앉으나서나 마음을 인민들과 병사들에게로 달리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을 위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꽃피우신 사랑은 오늘 가장 감동적인 노래시대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지난해 첫날 온 나라

가정들에 축복을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온 나라 가정들과 이렇듯 뜨겁게 혈맥을 이으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우리러 이 땅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한해 걸으신 사랑의 길은 온 나라 가정들의 만복을 꽃피우실것을 자신께서 하셔야 할 사명도 여기시고 비가 와도 길고 눈보라 휘몰아쳐도 또 걸으신 헌신의 정정이다.

천지개벽을 노래하는 이 나라의 선경들은 위대한 헌신적복무로 한순간한순간을 가장 광휘롭게 엮어가신 인민의 아버지의 거룩한 행로를 전하는 력사의 증경자이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세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뜨거운 말씀을 남기시어 이 나라 어머니들 모두를 울린 사랑의 집,

당과류의 맛도 톡히 보이주시며 조건보장은 최고사령관이 전적으로 맡았으니 생산을 정상화하여 여러가지 식료를 균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라고 하신 조선인민군 11월 2일공강.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이라고 톡히 말씀하시며 겨울에도 찾고 봄에도 찾은 여름에도 찾으신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

당에서 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 수준의 구강병원인 있다는것을 소개하신 하지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건강함을 띠고 락을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며 의사와 간호사들을 잘 치료해주라는 당부도 남기신 류경구강병원이며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신 옥류야동병원.

먼지가 날리던 곳에 희한하게 일떠세워 주신 방직공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눈부리 아득한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열나 나라 보기 좋소, 절명야에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고 있다고 그러도 만족해하신 고산과수농장.

만진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배에 몸소 오르시어 자신께서 이렇게 기쁜대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부모들이 희한한 물고기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자신께서는 군인들이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을 때까 제일 기쁘다고 그러도 환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원수님!

적대세력들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어린이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증산의 동음을 새겨 일일인데 대한 간곡한 당부도 남기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까지도 끝없는 행운속에 울고웃는 방직공들과 혈연의 정을 나누시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화폭을 남기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온 한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혁명업과와 하루하루, 한순간한순간은 이렇게 격동적으로 흘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이런 숭고한 사랑감으로 피를 흘리시며 이 나라의 새벽마다 남편의 여신과 겨울의 첫눈에 첫 자욱을 새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위대한 혁명업과의 체현자이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위대한 품을 아버지이시라 목메어 부른다. 자기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햇빛처럼 밝게 비친 어머니사랑이 더더욱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이 아침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어이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원수님께로 달려지 않나랴.

사랑은 한없이 고결한 인정의 세계이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은것,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는 인정이 깊어야 한다.

피와 눈물, 정서와 감정이 불등이같은 인간을 사람들은 따르며 그와 운명을 함께 한다. 장설도 녹이는 인정미, 호수같이 웅심 깊은 정서, 가을같이 풍만한 감정을 소유한 열렬혁명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바로 이런 위대한 천품의 소유자이시다. 인간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슬하의 천만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의 사랑이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들어 키워 장군님과 정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넓고넓은 인정의 품에 인민들의 지향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기쁨도 시름도 다 안고 계신다.

어머니는 못한 지식, 말쑥없는 자식이 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쓴다.

이런 어머니의 진정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신다. 당의 품에 품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인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문제를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이시다.

멋졌지만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것으로 가슴에 시름을 품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마음속그늘을 가져주시고 잘못을 저질러 피로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심의 기둥을 세워주시어 어머니 우리 당과 피조처럼 생을 잇게 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생을 목질없이 살도록 천부모의 정으로 품어주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준 한 일군의 소행자로 보시며 우리 원수님 얼마나 복받치는 격정을 감지 못하시었던가. 멀리 떨어져있는 사랑하는 자식을 성심성의로 돌보아주시는 일군을 자신의 고마운 은인으로 여기시는 친절육육의 정과 열을 초월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따사로운 인정의 품에서 북돋운 삶을 누리왔단가. 전체 인민의 념원으로부터 매 사람의 생활과 소원까지도 다 헤아려주고 끌어주시러니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기울이는 사랑은 그 얼마나 크랴.

과와 밭이 따로 없고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으시다.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들이 세상만복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것장생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불멸의 강행군사를 엮어가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고도 더 좋은것이 생각나시여 잠 못 이루시는 우리 원수님, 어느 하루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밤을 밝혀가며 일을 하시다가도 인민들이 먹을 볼수 있는 일을 하였다든 보고를 받으실 때면 피곤도 삼시에 사라지고 힘이 부쩍 솟는다고 행복에 겨워하시는 우리 원수님.

물고기같은 받아안은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받아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정말 이런 맛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뭉클해지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합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소라고 복받치는 격정을 감지 못하시던 위대한 어머니의 말씀 우리 어찌 천년이 간들 잊을수 있나랴.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정치이며 혁명가의 가장 큰 락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에 있다는 강중한 선언과도 같이 인민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시다.

이런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이시기에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정치가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쓴다. 이 땅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이런 숭고한 사랑감으로 피를 흘리시며 이 나라의 새벽마다 남편의 여신과 겨울의 첫눈에 첫 자욱을 새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위대한 혁명업과의 체현자이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위대한 품을 아버지이시라 목메어 부른다.

자기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햇빛처럼 밝게 비친 어머니사랑이 더더욱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이 아침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어이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원수님께로 달려지 않나랴.

사랑은 한없이 고결한 인정의 세계이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은것,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는 인정이 깊어야 한다.

피와 눈물, 정서와 감정이 불등이같은 인간을 사람들은 따르며 그와 운명을 함께 한다. 장설도 녹이는 인정미, 호수같이 웅심 깊은 정서, 가을같이 풍만한 감정을 소유한 열렬혁명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바로 이런 위대한 천품의 소유자이시다. 인간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슬하의 천만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의 사랑이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들어 키워 장군님과 정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넓고넓은 인정의 품에 인민들의 지향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기쁨도 시름도 다 안고 계신다.

어머니는 못한 지식, 말쑥없는 자식이 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쓴다. 이 땅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이런 숭고한 사랑감으로 피를 흘리시며 이 나라의 새벽마다 남편의 여신과 겨울의 첫눈에 첫 자욱을 새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위대한 혁명업과의 체현자이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위대한 품을 아버지이시라 목메어 부른다.

자기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햇빛처럼 밝게 비친 어머니사랑이 더더욱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이 아침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어이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원수님께로 달려지 않나랴.

사랑은 한없이 고결한 인정의 세계이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은것,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는 인정이 깊어야 한다.

피와 눈물, 정서와 감정이 불등이같은 인간을 사람들은 따르며 그와 운명을 함께 한다. 장설도 녹이는 인정미, 호수같이 웅심 깊은 정서, 가을같이 풍만한 감정을 소유한 열렬혁명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바로 이런 위대한 천품의 소유자이시다. 인간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슬하의 천만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의 사랑이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들어 키워 장군님과 정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넓고넓은 인정의 품에 인민들의 지향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기쁨도 시름도 다 안고 계신다.

어머니는 못한 지식, 말쑥없는 자식이 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쓴다. 이 땅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이런 숭고한 사랑감으로 피를 흘리시며 이 나라의 새벽마다 남편의 여신과 겨울의 첫눈에 첫 자욱을 새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위대한 혁명업과의 체현자이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위대한 품을 아버지이시라 목메어 부른다.

자기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햇빛처럼 밝게 비친 어머니사랑이 더더욱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이 아침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어이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원수님께로 달려지 않나랴.

사랑은 한없이 고결한 인정의 세계이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은것,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는 인정이 깊어야 한다.

피와 눈물, 정서와 감정이 불등이같은 인간을 사람들은 따르며 그와 운명을 함께 한다. 장설도 녹이는 인정미, 호수같이 웅심 깊은 정서, 가을같이 풍만한 감정을 소유한 열렬혁명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바로 이런 위대한 천품의 소유자이시다. 인간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슬하의 천만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의 사랑이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들어 키워 장군님과 정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넓고넓은 인정의 품에 인민들의 지향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기쁨도 시름도 다 안고 계신다.

어머니는 못한 지식, 말쑥없는 자식이 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쓴다. 이 땅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이런 숭고한 사랑감으로 피를 흘리시며 이 나라의 새벽마다 남편의 여신과 겨울의 첫눈에 첫 자욱을 새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위대한 혁명업과와 하루하루, 한순간한순간은 이렇게 격동적으로 흘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이런 숭고한 사랑감으로 피를 흘리시며 이 나라의 새벽마다 남편의 여신과 겨울의 첫눈에 첫 자욱을 새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위대한 혁명업과의 체현자이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위대한 품을 아버지이시라 목메어 부른다.

자기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햇빛처럼 밝게 비친 어머니사랑이 더더욱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이 아침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어이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원수님께로 달려지 않나랴.

사랑은 한없이 고결한 인정의 세계이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은것,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는 인정이 깊어야 한다.

피와 눈물, 정서와 감정이 불등이같은 인간을 사람들은 따르며 그와 운명을 함께 한다. 장설도 녹이는 인정미, 호수같이 웅심 깊은 정서, 가을같이 풍만한 감정을 소유한 열렬혁명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바로 이런 위대한 천품의 소유자이시다. 인간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슬하의 천만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의 사랑이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들어 키워 장군님과 정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넓고넓은 인정의 품에 인민들의 지향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기쁨도 시름도 다 안고 계신다.

어머니는 못한 지식, 말쑥없는 자식이 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쓴다. 이 땅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단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행보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시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 새해 첫 우표가 나왔다



새해 주제 104(2015)년의 첫 우표를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창작하여 내놓았다.

《주제 104(2015)》,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쓰여진 우표에는 설눈이 내리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와 개헌문, 은빛세계를 펼친 수도의 전경이 형성되어 있다.

우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내이는 대추진장으로 향한 새해의 보람찬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 인민의 환희와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내이는 대추진장으로 향한 새해의 보람찬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 인민의 환희와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내이는 대추진장으로 향한 새해의 보람찬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 인민의 환희와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내이는 대추진장으로 향한 새해의 보람찬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 인민의 환희와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내이는 대추진장으로 향한 새해의 보람찬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 인민의 환희와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내이는 대추진장으로 향한 새해의 보람찬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 인민의 환희와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새해에 울려 퍼진 화선선동의 로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올해 새해를 격조높이 축하하는 축로 피바다가 수도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장식하는 그 시각 중앙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이 전력생산의 동음세한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

심금을 틀어잡은 화선선동은 첫시작부터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탄탄진장의 전력생산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녀성독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남성독창 《변형하여라 로동당사대》, 녀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는 더 높은 전력증산성과로 조국해방 일흔둘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셋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이북 로동계급의 투쟁

열의를 더욱 배배해 주었다.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희극에 《유쾌한 지인자》, 체력예 《2인공치기》도 혁명적량만과 정서를 더해 주었다.

이런 화선선동공연무대에는 평양인형극단의 인형소품 《장교재주》도 울려 퍼졌다. 전력생산자들이 기쁘게 해주었다.

화선선동공연을 보고나서 타민직장 2교대의 전력생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큰 힘을

## 중앙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힘있는 경제선동 진행

발전소에서 새해 첫 화선선동의 로성을 높이 울려 퍼졌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간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 평양인형극단의 예술인들과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달려나간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의 화선선동은 전투장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전력생산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공연, 열렬한 호응 열의를 더욱 배배해 주었다.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희극에 《유쾌한 지인자》, 체력예 《2인공치기》도 혁명적량만과 정서를 더해 주었다.

이런 화선선동공연무대에는 평양인형극단의 인형소품 《장교재주》도 울려 퍼졌다. 전력생산자들이 기쁘게 해주었다.

화선선동공연을 보고나서 타민직장 2교대의 전력생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큰 힘을

얻었다. 온 나라가 우리 교대, 우리 직장을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거워진다. 힘찬 경제선동의 로성을 열렬한 박수갈채로 만 호응할수 없다. 신들미를 든 듯이 조여매고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겠다

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들의 전투적인 화선선동에 고무되어 교대장 문명선동무를 비롯한 탄탄진장 2교대의 전력생산자들은 자기 교대시간에 생산실적을 140%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동력기지에 패아린 애국의 호소 평양의 밤을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비치는 저 불빛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이어나가는 동평양화력발전소에 서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인민배우 장영옥동무를 비롯한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의 판목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경제선동대원들의 공연이

회향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설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이들의 전투적인 화선선동에 고무되어 교대장 문명선동무를 비롯한 탄탄진장 2교대의 전력생산자들은 자기 교대시간에 생산실적을 140%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동력기지에 패아린 애국의 호소 평양의 밤을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비치는 저 불빛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이어나가는 동평양화력발전소에 서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인민배우 장영옥동무를 비롯한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의 판목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경제선동대원들의 공연이

#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밝아온 새해에 넘쳐나는 기쁨과 랑만

## 따뜻한 정이 넘치고 더 밝은 미래가 약속된 우리의 새해

새해가 밝아왔다. 주제 104 (2015)년 새해의 장엄한 해돋이와 더불어 이 땅에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랑만이 한껏 넘쳐난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마다 명절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으로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당장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력사적인 새해 2015년의

0시,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내 조국의 하늘가에 아름다운 불보라, 불꽃세계가 펼쳐졌다.

수도의 대동강변에서 흥취하는 화광속에 천만민화의 이채로운 화광을 펼쳐며 축포가 터져 오르고 명절의 한밤을 지새는 사람들의 걱정, 환호성, 감격의 만세소리가 거리와 마을마다에서 울려퍼졌다.

새해의 축포성, 그것은 조국청사에 또 한들기 자랑스러운 년를 새기게 될 뜻깊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메아리였고 위대한 당을 따라 새해의 진군에서 보다 큰 승리를 안아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터져오르는 축포의 제방에 휩싸여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만수대만덕으로 끓어올랐다.

언제나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어 어디서나 보이는 언덕, 누구나 뜨거운 심장속에 안고 사는 성스러운 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리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직한 모습!

어찌 만수대만덕뿐이랴, 전국 각지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인민의 끝없는 충정과 경모의 마음이 대하가 되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밝아온 새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대

와 인민에게 보내시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더더욱 뜻깊고 즐겁게 흐르고있다.

즐거움 새해맞이풍경, 들끓는 명절분위기로 온 나라가 흥성이다. 수도와 지방의 극장, 문화회관에서 환희로운 경축공연무대가 펼쳐졌다.

봉화예술극장, 모란봉극장, 평양교예극장 등 수도의 여러 극장과 지방의 극장, 문화회관에서 진행될 경축공연은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명절을 즐기는 우리 인민에게 새 힘과 용기,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었다.

전국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애송이와 연필우기, 팬이치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진행하며 새해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전국의 금양봉사당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즐겁고 가슴호호한것인가.

새해를 맞이한 이 땅에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었다. 노후와 병을 비롯한 수많은 원자재들이 평양시와 황해북도의 육아원, 애육원들, 금양봉사당들에 보내졌다.

지나온 한해에도 만사들의 가슴을 적시며 끊임없이 태어난 사랑의 전설이건만 새해의 첫기쁨에서부터 배풀어지는 다심한 어버이사랑에 천만의 심장은 더욱 뜨거워진다.

지금 수도시민들은 평양의 이름난 식당들마다에서 평고기국수, 고기쟁반국수, 노루불고기국수, 합계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명절음식인 여러가지 맛

고 영양가 높은 민족음식들을 봉사받으며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적 시고있다. 전국의 모든 금양봉사당위에서도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여러가지 민족음식들을 가지고 명절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온 나라 도처에 마련된 문화정서생활기지와 체육시설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풍라팝뿔어판을 비롯하여 수도의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는 물론 도소재지와 시, 군들에 꾸러진 공원과 유원지, 로라스케트장마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곳곳에 불야경이 펼쳐졌다. 수도 평양은 물론 멀리 북반의 극경도시로부터 분계연선도시에 이르기까지 조국방 방방곡곡에 환호하는 불바다가 펼쳐져 새해를 맞는 내 조국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명절의 한밤이 신년경수축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는사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호모의 정으로 잠 못드는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새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하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불타는 맹세와 각오, 아름다운 생활의 향만을 안고 새해가 밝아온 이 땅에 뜻깊은 명절의 나날이 즐겁게 흘러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 초소에서 날아온 축하엽서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평천구역 북성1동 44인민반에서 사는 김길순로인의 가정의 분위기는 서로서로 나누는 인사로 무척 따뜻했다.

《할머니, 새해 건강하십시오.》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차분히 조신절을 하는 손자, 손녀에 뒤이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저저마다 따라왔다.

《어머니, 새해에도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새해의 첫아침 만수대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서 인사할 때면 만경대천석식당 대작업원의 종업원들의 발걸음은 약삭이나 한듯이 한 곳으로 향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만나서 인사를 나누어야 할 사람들도 많고 갈 곳도 많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만경대구역 서산동 36인민반에 자리잡고있는 특유영예군인 우금철동무의 집앞에서 멈춰졌다.

《오냐, 너희들도 말은 일에 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때 누군가가 울리는 초인종소리가 노래소리처럼 울렸다. 문을 여니 우편물 신원이 정답게 인사를 하며 가방에서 많은 축하엽서들을 꺼내주는것이였다.

《초소에 있는 군인들이 또 이렇게 축하엽서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초소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이 로인을 잊지 않고 이

렇게 멀리에서 새해인사를 보내어왔구나. 내 이런 기쁨의 순간을 맞보자고 원군의 길을 걷는것이냐 아닌지 모르겠다.》

많은 축하엽서들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김길순로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껏 어여워졌다.

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국이라는 큰집을 가슴속에 안고 원군의 길을 걷는 데서 참된 인생의 보람을 찾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들의 첫아침도 군민의 뜨거운 정속에 밝았으리라.



희망찬 새해를 맞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랑만이 넘친다. - 평양시에서 -

## 제일 먼저 찾은 집

《김철동지,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들이 안겨주는 꽃다발이며 기쁨을 받아온 영예군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있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의를 언제나 잊지 않고 새해에도 조국을 위해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겠습니다.》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소중히 새겨안은 영예군인을

바라보는 절대적업반 종업원들의 마음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찌 이틀만이라.

10여년, 아니 수십년간 하루와 같이 뜨거운 동지적 의심을 안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인민군대후방가족을 남김치 찾으며 새해의 첫아침을 맞는 우리 사회의 맑고많은 참된 사람들이 위해 올헤에도 내 조국의 첫아침은 미덕의 향기속에 밝아왔다.

한 불만 하였다. 오르내리는 옷가락들에서 눈길을 못 떼며 《오야...》, 《송이야...》 하는 열면 목소리가 방안을 들썩하게 하였다.

터져나오는 환성, 짝자그르르 손뼉치는 소리,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다.

새해에도 하나로 뭉친 힘으로 더 힘있게, 더 단게 전진해갈 내 조국의 모습을, 본사기자 리 건 일

## 기쁨을 더해준 웃놀이경기

맑은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랑만속에 새해를 맞이한 락관구역 총성2동 49인민반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지나간 시기 마음우러기며 인민군대원호사업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늘 앞장서서 그들은 새해에 인민반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열의를 안고 인민반장 리순현동무의 집에 모여 흥겨운 웃놀이판을 벌여놓았던것이였다.

웃놀이판에 바짝 붙어앉아 긴장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열면 모습도 좋지만 북장단에 맞추어 서로 승부격이 뜨거워지며 흥겨운 웃음소리가 울리는 응원자들의 모습도

이룩한 열의를 안고 인민반장 리순현동무의 집에 모여 흥겨운 웃놀이판을 벌여놓았던것이였다.

웃놀이판에 바짝 붙어앉아 긴장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열면 모습도 좋지만 북장단에 맞추어 서로 승부격이 뜨거워지며 흥겨운 웃음소리가 울리는 응원자들의 모습도

새해는 사람들사이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 어머니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합시다.》

《새해 자식들을 더 잘 키워내세웁시다.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해가 시작된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 생활의 갈피갈피에 새겨지고 있는것인가. 지금 이 시작...

년중의 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도 류달리 소중하고 환희롭게 느껴지는 새해의 약속, 아마도 그것은 밝아오는 새해와 더불어 누구나 가슴속에 품는 꿈과 희망이 그만큼 강렬하고도 절절하기 때문일것이다.

하디만 새해의 약속중에서도 가장 열렬하고 뜻깊은 약속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행렬을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갑시다.》

흰눈덮인 이 아침 새해의 약속을 놓고 가지가지 뻗어나가는 새해에 잡기라니 떠오르는 글밭이

피눈물의 언덕에서 맞이한 주제 84 (1995)년 새해에 우리 장군님께서 온 나라 군대

와 인민에게 보내시었던 서한의 구절구절이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1995. 1. 1

《김정일》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새해의 언덕에서 인민과 하신 약속이었다. 조국

력사적인 첫 신년사에서 온 나라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복해주신 그때로부터 한해 또 한해 부강조국건설의 앞장에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보다 큰 비약과 기적창조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천리방성의 군인들에게 정과 열을 주시며 우리의 군력과 국방력을 불라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멸적으로 더욱 굳게 다지고 이 땅에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번영을 열어 주신 우리 원수님이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계속 혁신, 계속전진의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주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입니다.》

양력설의 유정한 저녁 우리는 수도의 거리에 넘치는 시민들의 즐거움 웃음소리에 귀를 감구며 위대함을 이어나갔다. 풍라인민유원지가 환호에 비호하는 대동강구역 한성1동 24인민반 아파트 7층 3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활짝 열렸다.

《어서 오십시오.》

울음은 목소리로 반겨맞는 사람은 열대만 일러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문가까지에

방문 기

마당에 나서시였을 때였다. 땀처럼 불어지는 찬바람에 공장구내의 아름다움들이 초리를 떨며 우수수 설레었다.

리용군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추운 날에 모신 피스어움으로 응대하시는데 원수님께서는 구내 길을 천천히 지나시며 원림로화가 잘된대 대하여 치하하시는데는 것이였다. 이때 한 일군이 기사장 리용군동무를 가리키며 이 동무의 아버지가 지베인

## 추복받은 애국가정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기사장 리용군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마당에 나서시였을 때였다. 땀처럼 불어지는 찬바람에 공장구내의 아름다움들이 초리를 떨며 우수수 설레었다.

리용군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추운 날에 모신 피스어움으로 응대하시는데 원수님께서는 구내 길을 천천히 지나시며 원림로화가 잘된대 대하여 치하하시는데는 것이였다. 이때 한 일군이 기사장 리용군동무를 가리키며 이 동무의 아버지가 지베인

지켜가는 쉽지 않은 애국가정이라고도 공장이 울리도록 크게 말씀하시였다.

《저는 기사장사업을 시작하지 아직 1년도 채 안되고 별로 큰일을 해놓은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의 맘이 스민 일로써 대를 이어 지켜간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 저의 가정을 애국가정으로 높이 평가하시는데는 것이였습니다.》

리용군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온 한 일군은 우리 공장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그리고 부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다고 하면서 기사장동무의 가정을 애국가정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그들모두에게 인겨진 크나큰 영광이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리용군동무의 인해 주영만동무는 우리를 집안의 벽을 짚 채운 기념사진들앞으로 이끌었다. 10여상이나 되는 기념사진들은 리용군동무의 아버지 리상현동무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난 후 평양방직공장(당시)에서 직장으로 일한 리상현동무는 1970년

부터 1993년말까지 지베인으로, 그후부터 생을 마치는 2001년까지 고근지베인으로 사업하였다.

방직공장병원에 출생하고 유치원도 공장유치원을 다니 리용군동무는 군사부문을 마친 후 한덕수평양공업대학에서 가서 방직공학을 배워오는 아버지의 권고를 거기에 받아들였다. 대학졸업후 그는 생산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지난해 1월 기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아버지가 한성도로를 영광의 기념사진들 곁에 아들 리용군동무가 전국과 학자, 기술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함께 빛나고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애국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10살 리원국소녀인 사친숙의 아버지를 찾아 가리켜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랑또랑한 그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자식들이 땀땀이 말할 수 있게 나는 살고있는가. 당과 조국에게 한성도로를 충정다한 훌륭한 부모의 아들딸이라고 부끄럼없이 나설수 있게 나는 일하고있는가. 10여상이나 되는 기념사진들은 리용군동무의 아버지 리상현동무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난 후 평양방직공장(당시)에서 직장으로 일한 리상현동무는 1970년

## 새해의 약속

앞에 다지신 심장의 맹세였다. 그 약속을 지켜 그 얼마나 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쳐나오

이 땅에는 꽃피는 봄날도, 열매맺는 가을도 있건만 그 좋은 날, 좋은 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다 들려주시고 자신께서는 비고도 눈내리는 흰눈을 길고 또 길고신 우리 장군님, 마지막 영결의 길을 가시면서도 평평 쏟아지는 흰눈을 떠고고 가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진정 인민과 하신 약속, 조국안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한몸을 초볼같이 태우신 헌신의 한생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생 걸으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그 길을 오늘도 우리 원수님께서 걸으신다.

잊을수 없다.

이면 《엄마, 매일 또 나가요?》 하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어린 이윽음을 꼭 거안고 《매일은 엄마가 제일 바쁜 날이야.》 하고 달래며 밤이 새도록 잠 못 이루는 그 몇몇...

《그때마다 그는 한생을 수도 시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너성께 도전자운전사로 살려는 결의를 담아 어버이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려왔던 10여년전의 그날을 생각하곤 하였다.

그날의 맹세를 한번도 완수한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이런 박영애동무였기에 올해에도 인민을 위한 복무의 첫걸음을 남보다 먼저, 더욱 힘있게 걸었다.

새해의 첫 운행길에 오른 박영애동무에게 낯익은 사람들이 인사말을 건넸다.

《운전사동무, 새해의 첫 운행을 축하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의 걸음이 더 빨라졌는데요.》

새해를 축하하는 아들들의 인사보다 늘 이처럼 손님들의 인

사들 먼저 반군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는 이룰 할수 없는 궁지가 차오른다.

나만큼 새해의 축하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손님들의 뜨거운 정 넘치는 인사말이 자신들에 대한 더없는 믿음과 기대로 안겨준다.

슬그머니 눈가에 고여오르는 뜨거운 것을 누가 볼새라 닦아내고 그는 경적소리가 높이 울리며 달리기 시작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밝아온 뜻깊은 새해의 양력설을 맞이한 수도의 환희로운 웃음이 차창으로 스쳐간다.

무대도전차안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의 랑만과 희열이 넘친다. 그 즐겁고, 희열과 랑만을 가슴에 새기며 박영애동무는 속삭인다.

(아들아, 어머니의 첫걸음에 수도 시민들의 행복이 실려있단다.)

리 신 향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김치일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평양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어머니당에 대해 고마움을 분출한 공영의 마름에 무대를 장식하며 수조처럼은 분수는 관관자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한겨울의 추위를 밀어내며 문수물놀이장에서 어서 오라 문을 활짝 열었다. 문수물놀이장에서는 행복이 넘쳐흐르는 형형색색의 수조들에서 물갈이 지쳐내리며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웃음꽃바다가 깔없이 펼쳐지고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승마주로가 양력설을 쇠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유쾌히 맞이하고있다. 승마부사에서 동근 승마모에 보지만 해도 탄력어느지는 우아한 승마복, 번쩍이는 목두루, 승마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들이 실내훈련장과 야외주로부터 경쾌하게 내닫는다. 주로부터 말을 타고 달려며 땀을 흘린 총각들과 처녀들이 승마복차림으로 예쁜 모습과 튼튼한 자세를 취하며 새해의 첫 사진을 찍기도 한다. 향유의 기쁨이 날이나 커가고 행복의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이

다채로운 명절봉사로 흥성이다

평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시민들이 광활한 미레로 달려갈 크나큰 포부를 안고 승마주로를 달리는 말발굽소리 마냥 들쭉이 울린다.

인민야외빙상장과 개신천년공원유치장에서도 새해를 맞이한 각계층 시민들의 환화가 끝없이 차넘치고있다.

서로서로 손잡고 은반우를 지치는 청소년들, 전자오락을 하며 앞날의 꿈을 키우는 학생소년들의 얼굴마다에 우리 당에 대한

가마음이 한껏 어여워졌다.

평양제1백화점과 광복구지사업소집의 봉사자들은 두 단위가 서로 경쟁처럼 결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차배질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실천속에 되새기며 뜻깊은 명절봉사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평양야외빙화점과 곳곳에 있는 야외매대들도 흥성이고있다. 부모들의 손목잡고 평양야외동백화점으로 들어서는 아이들

의 발걸음이 그 천세고도 아늑대들에서는 따끈한 보리차며 단물, 군고구마, 구운락화생 등을 봉사해주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친절한 명절봉사를 받아내고있는 시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장군님의 열렬한 인민사랑을 변함없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신 현 규

## 어머니의 첫 걸음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첫 운행을 시작한 승선무대도전차 사업소 운전사들속에는 너성운전사도 있다.

그가 바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박영애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 맡은 조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단란한 가정적분위에서 집안식구들과 함께 오붓이 모여앉아 즐겁게 새해를 맞는것은 너성이라면, 한가정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배서롭게 여기는 새해의 첫 일과일것이다.

그러나 박영애동무는 너성께 도전자운전사로 운행지은 그 때로부터 10여년째일 수도 시민들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새해를 맞고 있었다.

명절을 하루 앞둔 설날그믐날

이면 《엄마, 매일 또 나가요?》 하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어린 이윽음을 꼭 거안고 《매일은 엄마가 제일 바쁜 날이야.》 하고 달래며 밤이 새도록 잠 못 이루는 그 몇몇...

《그때마다 그는 한생을 수도 시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너성께 도전자운전사로 살려는 결의를 담아 어버이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려왔던 10여년전의 그날을 생각하곤 하였다.

그날의 맹세를 한번도 완수한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이런 박영애동무였기에 올해에도 인민을 위한 복무의 첫걸음을 남보다 먼저, 더욱 힘있게 걸었다.

새해의 첫 운행길에 오른 박영애동무에게 낯익은 사람들이 인사말을 건넸다.

《운전사동무, 새해의 첫 운행을 축하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의 걸음이 더 빨라졌는데요.》

새해를 축하하는 아들들의 인사보다 늘 이처럼 손님들의 인

사들 먼저 반군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는 이룰 할수 없는 궁지가 차오른다.

나만큼 새해의 축하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손님들의 뜨거운 정 넘치는 인사말이 자신들에 대한 더없는 믿음과 기대로 안겨준다.

슬그머니 눈가에 고여오르는 뜨거운 것을 누가 볼새라 닦아내고 그는 경적소리가 높이 울리며 달리기 시작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밝아온 뜻깊은 새해의 양력설을 맞이한 수도의 환희로운 웃음이 차창으로 스쳐간다.

무대도전차안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의 랑만과 희열이 넘친다. 그 즐겁고, 희열과 랑만을 가슴에 새기며 박영애동무는 속삭인다.

(아들아, 어머니의 첫걸음에 수도 시민들의 행복이 실려있단다.)

리 신 향

우리 인민들에게 나날이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어머니당에 대해 고마움을 분출한 공영의 마름에 무대를 장식하며 수조처럼은 분수는 관관자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한겨울의 추위를 밀어내며 문수물놀이장에서 어서 오라 문을 활짝 열었다. 문수물놀이장에서는 행복이 넘쳐흐르는 형형색색의 수조들에서 물갈이 지쳐내리며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웃음꽃바다가 깔없이 펼쳐지고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승마주로가 양력설을 쇠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유쾌히 맞이하고있다. 승마부사에서 동근 승마모에 보지만 해도 탄력어느지는 우아한 승마복, 번쩍이는 목두루, 승마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들이 실내훈련장과 야외주로부터 경쾌하게 내닫는다. 주로부터 말을 타고 달려며 땀을 흘린 총각들과 처녀들이 승마복차림으로 예쁜 모습과 튼튼한 자세를 취하며 새해의 첫 사진을 찍기도 한다. 향유의 기쁨이 날이나 커가고 행복의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이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풍라팝뿔어판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풍라팝뿔어판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풍라팝뿔어판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풍라팝뿔어판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